

# AR·VR에 미디어... 구글 등과 脫통신 글로벌협력 '성과'



美 최대방송사와 '캐스트닷컴' 선배 방송용 클라우드 인프라, OTT, 광고 CES서 ATSC3.0 기반 멀티뷰 중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인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0'에서 글로벌 협력을 가속화하며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

특히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전통적인 무선 사업에서 벗어나 가상·증강현실(VR·AR), 미디어 등 탈통신 행보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 ◆SKT, 美 싱클레어와 합작회사로 방송 시장 공략

12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미국 최대 지상파 방송사 싱클레어 방송그룹과 합작회사를 필두로 미국 ATSC3.0(미국 디지털TV 방송 표준 규격) 방송 시장 공략에 나선다.

SK텔레콤과 싱클레어는 최근 합작회사 '캐스트닷컴'을 출범했고, 이달 초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사무소를 열었다.

합작회사의 대표 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싱클레어의 케빈 게이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SK텔레콤 박경모 박사가 맡는다.

싱클레어는 2019년 MLB, NBA, NHL 42개팀의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는 FSN(폭스스포츠네트워크)을 106억달러에 인수한 미국 콘텐츠 업계 강



루시 루티스하우저 싱클레어 CFO(왼쪽부터), 케빈 게이저 캐스트닷컴 대표 겸 COO, 이종민 SK텔레콤 테크노비전 그룹장, 김진중 SK텔레콤 벨류 그룹스 그룹장이 CES 전시장 SK부스에서 캐스트닷컴의 ATSC3.0 방송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SK텔레콤

자다. SK텔레콤과 싱클레어 합작회사는 지난해 열린 'CES 2019'에서의 양사 협력 결실이다.

합작회사는 SK텔레콤의 통신 기술과 싱클레어의 방송 인프라를 결합해 미국 방송시장에서 ▲방송용 클라우드 인프라 ▲초저지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개인 맞춤형 광고 3대 사업 영역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의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 기술(TACO)과 가상 네트워크 기술(SONA)을 싱클레어 방송 시스템에 적용해 ATSC3.0 방송용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한다.

합작회사는 SK텔레콤의 모바일 고화질 영상 전송 기술(MMT)과 싱클레어가 보유한 뉴스, 스포츠 콘텐츠를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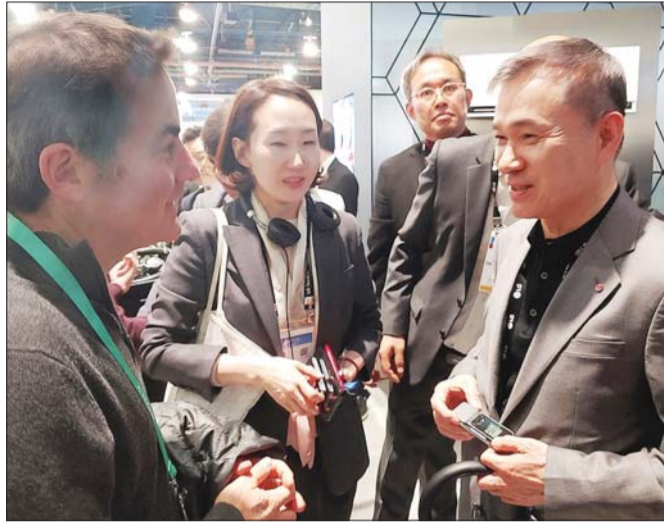
반으로 연내 초저지연 OTT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양사는 이번 CES 2020 기간 동안 SK텔레콤과 삼성전자가 부스에 설치된 차량용 콕핏에서 미국 최초로 ATSC3.0 기반 멀티뷰 중계를 시연하며, 기술을 뽐내기도 했다.

싱클레어의 스포츠, 뉴스 채널이 한 화면에서 여러 앵글로 중계돼 눈길을 끌었다.

이종민 SK텔레콤 테크 이노비전 그룹장은 "SKT-싱클레어 합작회사가 미국 ATSC3.0 방송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SK텔레콤의 미디어 사업이 해외 시장에서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VR 이어 AR까지...구글과 협력 나선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0에 참석한 하현희 부회장(오른쪽 첫번째)이 전시장에서 구글 주요 경영진을 만나고 있다. /LG유플러스

### LGU+

LG유플러스는 이번 CES 기간 동안 가상현실(VR)에 이어 증강현실(AR) 분야에서도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사업자 구글과 손을 잡았다. 양사는 AR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출자하는 AR콘텐츠 펀드를 즉시 조성하고, AR콘텐츠의 제작 및 글로벌 공급에 협력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공동 제작한 3D AR 콘텐츠를 유플러스 고객에게 한국에서 모아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구글은 '구글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전 세계의 통신사와 단말 제조사에 무관하게 서비스할 계획이다.

향후 LG유플러스는 AR콘텐츠와 구글과 협력하는 독점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실감형 콘텐츠 관련 생태계



증강현실 강화 위해 구글과 맞손 독점 콘텐츠 키워 AR 생태계 확장 5G 혁신형 콘텐츠에 5년간 2.6조 투입

확장에 나선다.

LG유플러스와 구글의 협력은 지난해부터 이어졌다. 양사는 LG유플러스의 VR전용 플랫폼인 'U+VR'와 구글의 유튜브에 K콘텐츠를 독점 공급해오고 있다. 이번 제휴는 VR콘텐츠 분야의 경험을 AR 분야로 확장하고, 구글과 공동 제작한 AR콘텐츠의 글로벌 공급에 나서 5G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LG유플러스는 AR, VR와 같은 5G 혁신형 콘텐츠 제작·수급에 5년간 2조 6000억원을 투입하며 공격적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는 최근 5년 간 관련 분야에 집행한 연평균 투자액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한 규모다.

아울러 지난해 360도 입체 촬영 제작 기술을 보유한 미국 8i와 독점 제휴를 통해 AR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 확대에도 나선다.

LG유플러스 측은 "5G 가입자가 1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부터 관련 시장이 본격 확대될 것으로 내다본다"며 "AR, VR 등 5G 콘텐츠 육성과 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CES 혁신상, 최고 제품상 대거 수상... IT강국 위상 다진 삼성·L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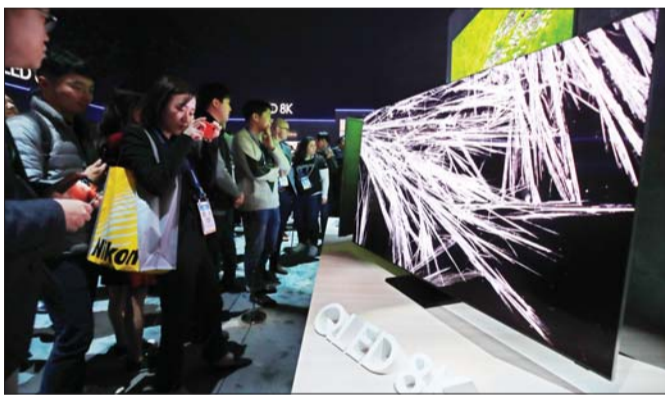
9년 연속 혁신상... 어워드 198개 석권 매체 "뛰어난 밝기·명암비 갖춰" 찬사 'Q-심포니', CTA 수여 '최고 혁신상'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CES(소비자가전쇼)에서도 최고 제품상·혁신상 등을 휩쓸며 'IT 강국'의 면모를 전세계에 과시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7~10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0'에서 CES 혁신상과 최고 제품상 등을 대거 수상했다.

삼성전자 제품들은 'CES 혁신상' 46개를 포함해 현장 어워드 198개를 수상했다. 9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한 TV 부문에서는 QLED 8K,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더 월(The Wall), 라이프스타일 TV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

QLED TV는 테크레이더, AVS 포럼, 트러스트티드 리뷰, 포켓리브, 지디넷 등 매체가 선정한 'CES 최고 제품'으로도 선정됐다. 테크레이더는 "2020년 최고의 기술에 단 하나의 제품을 올린다면 삼성의 QLED 8K를 꼽겠다"며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베젤과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삼성전자 부스에서 관람객이 QLED 8K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뛰어난 밝기·명암비까지 갖췄다"고 호평했다.

TV와 사운드바를 연결해서 사용할 때 두 기기 스피커를 모두 활용해 최적의 사운드를 찾아주는 'Q-심포니' 기능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수여하는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

올해 북미, 유럽 등 해외 시장에 출시할 예정인 '더 세로'도 주목받았다. 미국의 주요 시사주간지 '타임'을 비롯해 IT 전문매체 리뷰닷컴, 지디넷, 테크레이더 등이 더 세로를 'CES 최고 제품'으로 선정했다. '더 월'은 지디넷의 'CES 최고의 기술', 포켓리브의 'CES 최고의 제품' 등에 이름을 올렸다. QLED TV, 더 세로, 더 월 3개 제품은 월 스트리트저널과 씨넷이 선정한 'CES 최고의 제품'에도 나란히 올랐다.



LG전자 올레드 TV가 10일(현지시간) 'CES 2020'에서 TV 부문 'CES 최고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생활가전 부문에서는 '패밀리리브' 냉장고가 5년 연속 CTA가 선정하는 혁신상을 받았으며, 이번 CES에서 새롭게 선보인 '큐브 냉장고' 역시 호평을 받았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큐브 냉장고를 'CES에서 만난 최고의 신제품'과 '최고의 생활가전'으로 동시에 선정했다.

모바일 부문에서는 새롭게 공개된 '갤럭시 크롬북'과 '갤럭시 S10 라이트', '갤럭시 노트10 라이트'를 비롯해 다양한 제품이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됐다. 갤럭시 크롬북은 "지금까지 만든 크롬북 중 가장 멋진 크롬북(IT매체 기즈모도)라는 평가를 받았고, 씨넷의 'CES 최고의 노트북', BGR과 엔가젯의 'CES 최고의 제품' 등 약 20여개의 현장 어워드를 석권했다.

갤럭시노트10 라이트는 '최고의 CES 제품', '최고의 모바일' 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디지털트렌드의 '최고의 CES 기술', 리뷰닷컴의 'CES 에디터스 초이스' 등도 받았다.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5G와 갤럭시 S10 5G 제품 역시 CES 최고 혁신상 등을 받았다. LG전자도 이번 'CES 2020'에서 TV 제품을 중심으로 최고 혁신상 등을 대거 수상했다.

LG전자 제품들은 7~10일(현지시간) 열린 CES에서 주관사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는 'CES 최고 혁신상'과 'CES 혁신상' 46개를 포함, 총 119개의 어워드를 받았다. 특히 절반 이상인 69개는 TV 제품이 차지해 TV 기술의 리더십을 인정받았다고 LG전자는 밝혔다.



최고혁신상 포함... 총 119개 어워드 TV 제품, 절반 이상인 69개 선정 '리얼 8K' 화질·디자인 기술 호평

LG 올레드 TV(모델명 CX)는 CES 공식 어워드 파트너인 엔가젯으로부터 TV부문 최고상을 받았다. LG 올레드 TV가 CES 최고 TV로 선정된 것은 2015년 이후 6년 연속이다.

LG전자는 이번 CES에서 '리얼 8K'를 앞세운 TV 제품들을 대거 선보이며 화질·디자인 기술에 대해 호평을 받았다. 미국 IT매체 탐스가이드는 LG전자의 '벽밀착 디자인'에 대해 "LG 올레드 TV가 더 세련되고 얇게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생활가전 제품들도 다수 매체들로부터 어워드를 받았다. 인공지능 DD모터를 탑재한 'LG 트윈워시' 건조기,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 식물재배기, 얼음제조기 'LG 인스타뷰 크래프트 아이스' 등이 특히 높은 관심을 받았다. 대화면과 휴대성을 겸비한 'LG 그램 17' 노트북 등 IT 제품들도 총 23개의 어워드를 받으며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윤·구서윤 기자 yuni2514@